

고기술 · 고기능 고속 포장기계 개발 주력

김영순 / 한국포장기계협회 상근 부회장

지난 2004년은 어려운 한해가 아닌가 생각 한다. 그러나 우리 포장기계업계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지혜롭게 잘 극복했다고 말할 수 있다.

주요한 사항으로는 첫째, 국내 전시회로 지난 5월 COEX에서 개최된 KOREA PACK 전시회는 30개국 370개 업체가 참가하여 방문객 17,000명을 기록한 사상 최대 규모의 국제 포장기자재 전시회로 그 성과가 대단했다.

둘째, 해외 전시회로는 중국 상해에서 7월에

개최된 PROPAK CHINA 전시회에는 10개사가 한국관으로 참가하여 700여건의 1000만불 상당으로 2건 20만불의 현지 계약체결의 성과를 올렸다.

셋째, 지난 10월 우리협회 창립 10주년의 행사를 제6회 포장기계인의날 행사와 더불어 중기청장 참석하에 거행했으며 이날 제5회 포장기계 대상 시상식도 중기청장이 직접 수여하였다.

넷째, 대외 수상으로는 (주)우성 엠피아이



◀ 한국포장기계협회 Propak China 한국관 운영

권영순 사장의 우수자본재 개발유공으로 산업 포장을 그리고 (주)화성기계(대표이사 정영환)와 (주)경한(대표이사 최해중) 두 회사가 신기술 실용화 촉진대회에서 산자부장관 기업 표창을 수상하는 등 각종 표창을 정부로부터 수상하였다.

다섯째 (주)홍아기연의 PACK CENTER 준공식 등 많은 포장기계회사들이 불황임에도 불구하고 공장 부지를 매입 신축공장을 완공하고 입주 하였음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비전의 제시로 해석하고 싶다.

여섯째, 지난 12월 약 60여 회원사의 공장을 직접 방문 하고 느낀 것은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최소 전년수준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었고 1인당 매출액도 연 2억원 이상인 회원사도 있는 등 평균적으로 1.5억원 정도의 수준은 되고 있었다.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었으나 역시 일손 부족의 애로는 해결이 안된 상태로 새해를 맞이했다.

특히 내수 침체로 수출이 활기를 띠어 수출비중이 매출액 대비 50% 이상인 업체도 상당수 있었고 업체평균 약 25% 수준은 되는 것으로 추정 된다. 지난 무역의 날에는 (주)홍아기연과 (주)세종파마텍이 500만불 수출탑을, 300만불 수출탑 2개사, 100만불 수출탑 3개사 및 개인 표창 등으로 수출의 열기가 뜨거움을 실감하였고 2005년도에는 1,000만불탑을 수상하겠다는 의욕이 가득한 회사도 있었음은 2004년도의 큰 성과가 아닐 수 없다.

지난해는 우리 포장기계 업계로서는 경기가 불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소 매출 면에서의 신장을 가져온 것은 내수의 부진을 수출로 불황을 타개한 결과로 생각된 한해로 지혜롭게 지나갔으

나 2005년도의 시장과 경기 전망은 계속 하강하는 경제성장률 4%선에 머무를 것이라는 전문가의 견해로 그리 밝지 않다.

따라서 새사업 발굴 보다는 계획된 사업의 지속적인 시장 개척으로 역시 수출에서 승부를 걸어야 하지만 연일 내려가는 달러 환율의 하락은 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국내 경기는 소비 감소에 따른 생산 감소와 투자억제 등으로 설비의 신 증설은 기대하기 어렵고 역시 수출에서 그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데 지속적인 달러 환율의 하락으로 인한 환차손을 매우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전망은 우리를 매우 우울하게 한다.

더욱이 중국을 위시한 대만 이탈리아 등의 질 좋은 저가 상품의 경쟁력에서 살아남을 지혜가 더한층 필요하다고 본다.

그 대안은 오로지 고기술 고기능의 고속 포장 기계의 출시로 승부를 걸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본다. 다행히 내수가 살아나면 더 한층 고무적인 전망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의 새로운 지역의 수출로 불황 타개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본다. ☺

기술원고를 모집합니다.

포장과 관련된 신기술을 발표할 업체와 개인은 '월간 포장계 편집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편집실 : (02)835-9041

E-mail : kopac@chollian.net